

국토교통부, “전통시장 등 생활 속 물류여건 개선 지원”

- 7일 청량리종합시장 찾아 현장 간담회 및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 점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6월 7일 오전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물류여건 개선을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‘우리시장 빠른배송* 서비스’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.

* '22년 국토교통부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으로 선정, '24년 11월까지 실증 진행
①기존 수기·전화에 의존하던 상품 주문·접수·배송 전 과정을 **모바일앱** 통해 디지털화,
②공동배송센터 기반 사전집화를 통해 **배송비 절감**, ③**다양한 배송서비스**(근거리·당일) 제공

○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우선 시장 인근에 설치된 전용 물류시설인 공동배송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, 모바일 앱으로 집화를 요청한 상점을 직접 찾아가 상품을 건네받으며 **고충도 청취**하였다.

□ 이어, 국토교통부는 상인들과 전통시장 물류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가졌다.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장과 함께 동대문구청장, 서울시 물류정책과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하였다.

○ 상인들은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웠던 **주문·배송관리가 편리**해졌다고 말했다.

- **배송비용 부담도 낮아져 온라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**하고 있다면서,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.

○ 이에, 백 차관은 ‘우리시장 빠른배송’과 같은 서비스가 전통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**적극 협업***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* 청량리종합시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('22~'24년)에 이어 중기부 특성화시장육성(디지털전통시장) 사업('24~'25년)을 통해 지원을 추진

□ 국토교통부는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IT 기술 접목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물류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, 추진할 예정이다.

2024. 6. 7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□ 서비스 개요

○ (사업명) '22년 국토교통부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*사업
(서울시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)

* 지자체가 물류취약지역 배송불편 등 지역적 물류문제 개선을 위해 각종 IT기술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경우 총사업비 50%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

○ (위치) 서울시 청량리종합시장, 노량진수산물시장, 암사종합시장(3개소)

○ (내용) 온라인 플랫폼과 공동배송센터를 통해 수기에 의존하던 전통시장 배송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다양한* 배송 서비스 제공

* (근거리) 시장 인근, (당일) 수도권, (택배) 전국, (묶음) 여러 상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묶음 배송

□ 기대효과

○ 공동배송을 통한 배송비 절감, 소비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배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편의증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

□ 서비스 개념도

